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항만연구단 물류항만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8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Crowley, 푸에르토리코 물류기업 인수 및 제휴	2
□ 중국 Qinzhou port, 아세안과의 무역 증대를 위한 발판 마련 중	3
□ NYK, 대서양 횡단 컨테이너 서비스(AES) 개시	4
□ Emirates, 아세안-중동-인도 서비스(AGI) 참여	4
□ 스리랑카 항만공사, Hambanthota Port 배후단지 외국인 투자 개방	5

□ Crowley, 푸에르토리코 물류기업 인수 및 제휴

- Crowley, 푸에르토리코 기업 Islandwide Air and Ocean 인수 및 Island Logistics와 제휴
 -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 위치한 Crowley Maritime은 푸에르토리코의 포워드 기업인 Islandwide Air and Ocean사를 인수하고 그 계열사인 Island Logistics사와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
 - 이로서 Crowley는 푸에르토리코에서 해상 및 항공운송, 트럭킹, 창고 등을 포함한 물류 전 분야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Crowley는 자사의 마이애미 및 잭슨빌의 창고 등을 활용하여 미국 본토와 푸에르토리코 간의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운송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간의 해상운송은 Jones Act¹⁾에 의해 연안운송으로 보호되고 있어 Crowley, Sea Star, Trailer Bridge, Horizon 등에 의해 과점되고 있으며 Crowley는 특히 푸에르토리코의 제1항만인 San Juan의 Isla Grande Port Terminal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Crowley의 푸에르토리코 서비스 라인>



< Crowley의 San Juan 터미널 현황>



자료 : <http://www.crowley.com>, 2010.9.8. / <http://www.ci-online.co.uk/>, 2010.9.9.

송주미 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1) Jones Act: 미국의 연안운송 보호법

□ 중국 Qinzhou port, 아세안과의 무역 증대를 위한 기반 정비 중

- 중국 남부의 Qinzhou항(秦州)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지역에 새로운 노선을 찾고 있음
 - 올해 1월, 중국과 협정을 맺은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회원국 간의 무역 증대를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확대를 위한 노력 강구
- 중국 정부는 Qinzhou항을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을 위한 전략적 항만으로 선택하였고, 그에 따른 역할 제고를 위해 항만 확장을 진행 중
 - 현재 Qinzhou항은 일반화물 터미널 4선석 (2만톤급 2선석, 3만톤급 2선석) 보유
 - 확장계획에 의해, 5만톤급 오일 터미널, 7만5천톤급 일반화물 터미널, 3천톤급 일반화물 터미널 개발 중이며, 3년 뒤인 '13년에 3선석 모두 개장 예정

<항만 위치>



자료 : Llody's list 2010. 9.7

□ NYK, 대서양 횡단 컨테이너 서비스(AES) 개시

- NYK는 대서양 횡단 컨테이너 서비스인 AES(Atlantic Express Shuttle)를 오는 9월부터 시작
 - '10년 9월 14일 앤터워프발 뉴욕행을 시작으로 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범
 - 본 서비스는 앤터워프항와 뉴욕항 간의 셔틀서비스로 불과 9일 정도 소요

< AES 네트워크 노선 >



자료: NYK Line

□ Emirates, 아세안-중동-인도 서비스(AGI) 참여

- 올해 8월 Evergreen, Simatech, OOCL 선사들이 공동운항을 시작한 AGI(ASEAN-Gulf-Indian Subcontinent) 서비스에 Emirates Shipping Line이 신규로 참여
 - 본 서비스는 태국, 중동을 거쳐 인도대륙까지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운항기간은 약 35일 정도 소요
 - AGI 운항 노선
 - : Laem Chabang – Singapore – Tanjung Pelepas – Port Klang – Colombo – Jebel Ali – Karachi – Mundra – Colombo – Port Klang – Singapore – Laem Chabang

- Emirates는 '10년 9월 17일에 태국을 출발하는 것으로 서비스 시작

* 본 서비스의 노선현황은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64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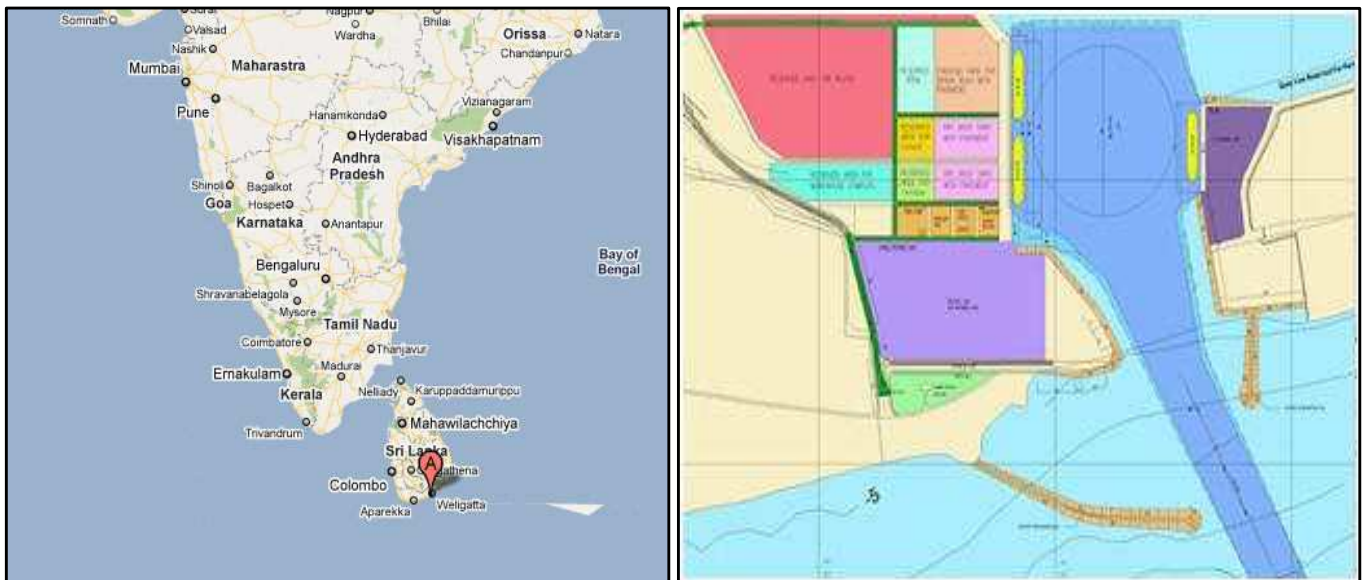
자료 : Seatrade Asia 2010. 9. 1

이진주 연구원(☎ 02-2105-2982, jinjoo@kmi.re.kr)

□ 스리랑카 항만공사, Hambanthota Port 배후단지 외국인 투자 개방

- 스리랑카 남부의 Hambanthota Harbour에 추진되고 있는 신규 항만 개발의 1단계 공사의 대부분이 2010년 8월에 완료되었으며, 오는 11월에 첫 입항을 준비 중임
 - 신규 항만의 총 공사비는 15억 달러로, 1단계 공사에는 3억 6,100만 달러가 투자됨
 - 시설 규모: 수심 16~17m, 선석길이 1,015m(일반화물: 600m/다목적: 105m/오일 310m)
- 이번 1단계 공사는 China Harbour Engineering²⁾과 Sino Hydro Corporation³⁾의 J/V가 개발하였으며, 총 공사비의 85%를 중국정부에서 제공함
- 스리랑카 항만공사(SLPA)에서는 10년 이내에 2단계 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동 항만이 남아시아 지역의 허브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벙커링 터미널을 제외한 항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함
 - 투자유치 분야는 벌크 화물 처리·저장 창고, 환적 및 기타 모든 시설로 이미 Hambanthota 프로젝트에 주요 선사를 포함한 30개 투자자들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힘

<항만 위치 및 Layout>



자료: CI-Online, 2010.8.3.

남경오 연구원 ☎ 02-2105-2929, reinhard79@kmi.re.kr

2) 중국의 해양 플랜트, 준설,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 건설 업체

3) 중국의 수력발전 및 기타 건설 전문 업체